

## 2024학년도 2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도전적인 글쓰기의 열쇠를 찾다]

이름	김동규
전공	행정학과
학번	20210330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7회차)

<글쓰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문장을 정리하여 글을 지어 나가는 행위.>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글쓰기는 항상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항상 지어진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해답을 찾던 수험생활을 지나 대학교에 와보니, '지어진 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공 과목이든 교양 과목이든 대부분의 과목에서 중간 대체과제나 보고서, 소논문의 형태로 논리적 체계를 갖추어 글을 만들고, 그 글을 통해 평가받습니다. 사실 글쓰기는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에게 있어 큰 부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글쓰기에 대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써내야 하는 글의 주제가 정해져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첫 글자를 던짐으로써 그 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상태에서 모든 것의 첫번째를 시작해내는 행위는 사실 두려웁습니다. 그 시작한다는 것 하나가 이후의 방향성이나 전체의 완성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에 대해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는데,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문장을 정리하여 글을 지어 나가는 행위'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정보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선 당연히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정보를 글을 통해 전달하려고 한다고 상상해도,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입학한 후로 항상 이러한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글을 시작할 때, 그것이 무슨 종류의 글인가에 따라 인사말이 될 수도 있고 서론이 될 수도 있지만, 글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마음 한 켠에 자리잡아 있었습니다. 교수님께 메일 하나를 보내는 데에도 10분을 고민하던 저는 마침내 글말교실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글쓰기가 어려웠던 이유.>

저는 이번 학기의 글말 교실을 통해 정말 많고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중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이 깊은 강의는 7회차 '자유연상적 글쓰기의 효용'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저는 '글을 시작하는 행위'라는 것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의 고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7회차 강의를 저에게 해답을 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글을 써내는 행위에 대해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쓴 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글쓰기를 '남들로부터 인정받은 글쓰기'일 것이라고 지목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아주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쓴 모든 종류의 글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평가받는 글이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때 '숙제'로 써서 제출하던 일기와 독서기록장조차 당시의 담임선생님께 평가받는 글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전한 저의 의지로 글을 써본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평가받는 것에만 집중한 글쓰기를 지금껏 해온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쓴 글을 평가받는다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평가받는 글이 작문 능력에 있어 성장의 발판이 됨은 명확합니다. 다만 제가 글쓰기에 대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꼈던 그 이유를 마침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도전적인 글쓰기의 열쇠를 찾다.>

이러한 부담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열쇠를 이 강의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자유 연상적 글쓰기' 였습니다. 자유 연상적 글쓰기가 어느 단계의, 어느 수준에서 작성되는 글쓰기인지에 대해 언급한다면, 글쓰기는 완성도와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단순 연상적 글쓰기, 언어 수행적 글쓰기, 의사 소통적 글쓰기, 통합적 글쓰기, 인식적 글쓰기의 순서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목적을 가지지 않는 freewriting을 하는 것이 자유 연상적 글쓰기이며, 가장 낮은 단계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교한 논리와 빈틈없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글쓰기를 인식적 글쓰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평가받았던, 또 평가받기 위해 써내야 하는 많은 글들은 모두 이 인식적 글쓰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하게 만들어 내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유 연상적 글쓰기' 라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러한 자유 연상적 글쓰기에 대해 나이키의 광고 'Just Do It!' 에 빗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이키의 광고는 보통 시작을 망설일 때, 시작하기가 두려울 때 일단 과감하게 시작하는 패턴이 많은데, 그것과 같이 '일단 글을 써 보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유 연상적 글쓰기의 장점으로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글쓰기의 규칙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글을 쓸 때 최소한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놓고 그 안에서 또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글을 작성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 연상적 글쓰기는 모든 규칙에서 벗어나 내가 생각나는 대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묵적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작성을 합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제가 써내야 하는 이 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줍니다. 다시 말해 freewriting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글의 훌륭한 초석이 되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하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두렵지 않게 되고, 글의 논리와 주제의 통일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어 더욱 유연하게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 연상적 글쓰기의 과정을 '쓸 내용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닌, 써보니 쓸 내용이 생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음을 이 강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Just Do It.>

자유 연상적 글쓰기의 핵심은 나이키의 광고 Just Do it처럼, '일단 글을 써보는 것' 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교훈은 시작이 두려울 때, 일단 그냥 해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강의는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 다루는 것이지만, 저는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면 정작 공부 자체는 시작도 못할 때가 많았는데 반해, 그냥 앉아서 여러 고민 없이 일단 공부를 시작하면 좋은 성적으로 연결되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과정에 있을 때에는 배운 것과 배울 것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 그 안에서 매순간 몰두하면 되지만, 시작을 하는 행위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시작이라는 것을 오히려 단순하게 이해하고 일단 행동에 옮기는 제가 되어야 하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